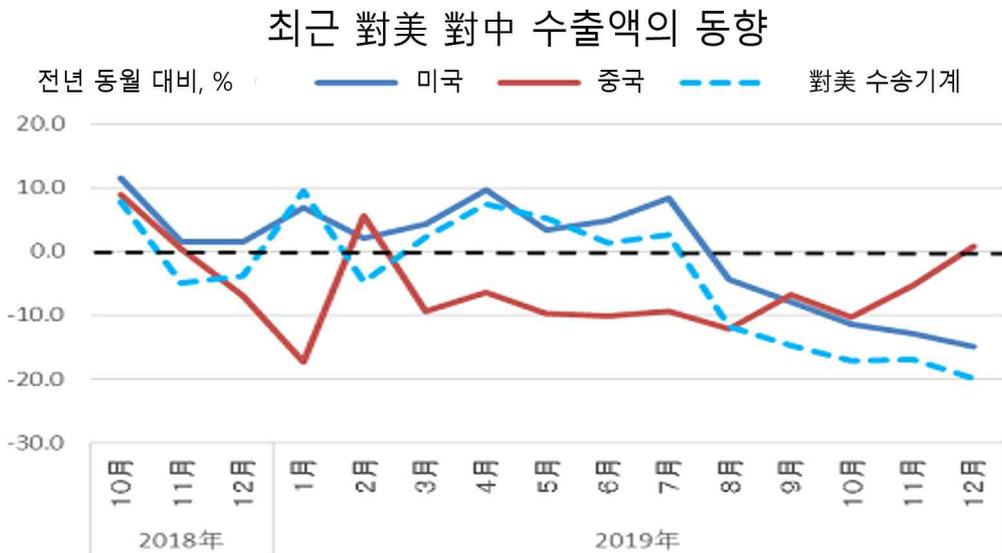


<요약>

□ 일본, 최근 대미수출 감소로 국내산업 파급 확대 우려

- 일본은 최근 대미 수출감소, 특히 수송기계의 대미 수출감소로 국내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크게 우려
 - 일본의 수출상대국 1, 2위로서 대중 수출은 작년 하반기 이후 전년동월대비 감소 기록, 대미수출은 2019년 7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였으나 2019년 8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하락으로 반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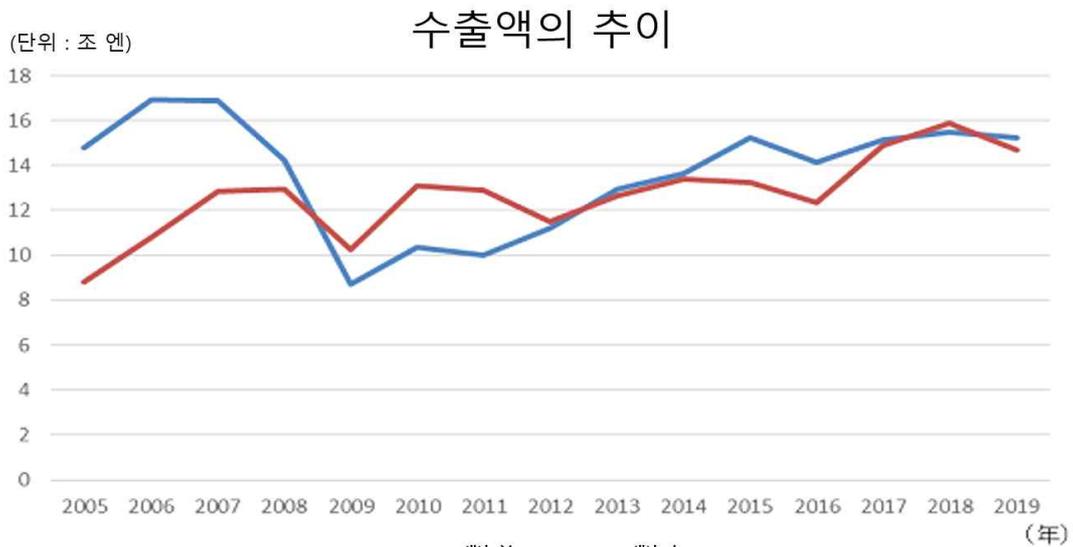


자료원 : 재무성 무역통계

- 산업연관분석에 의하면 대미수출(유발계수 1.41)이 대중 수출(유발계수 1.08)보다 일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근 대미 수출 감소, 특히 수송기계의 수출 감소를 크게 우려
 -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중에 대미 수출 주요업종 수송기계의 유발계수가 가장 높음.

□ 일본정부, 對中 수출감소 보다 對美 수출감소에 더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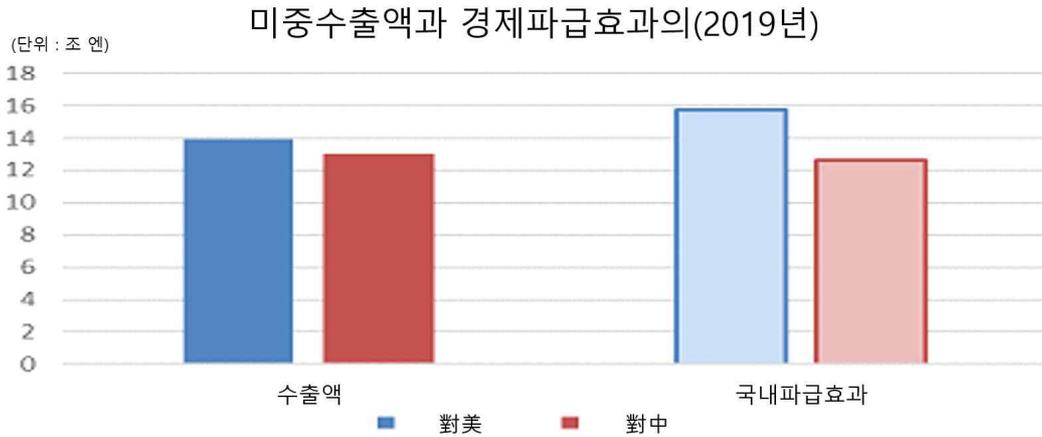
- 일본의 대미 수출은 2006년 과거 최고의 16.9조엔을 기록한 후 2008년 리만쇼크의 영향으로 대폭 하락. 그 후 대미 수출은 점차 회복되고, 일본의 대중, 대미 수출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
 - 2019년 대미 및 대중 수출을 보면 각각 15.2조 엔, 14.7조 엔으로 비슷한 수준
 - 산업연관표를 보면, 대미수출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는 15.8조 엔, 대중 수출의 파급효과 12.6조 엔으로 대미수출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가 3.2조엔 상회



자료원 : 재무성 무역통계

— 對美 — 對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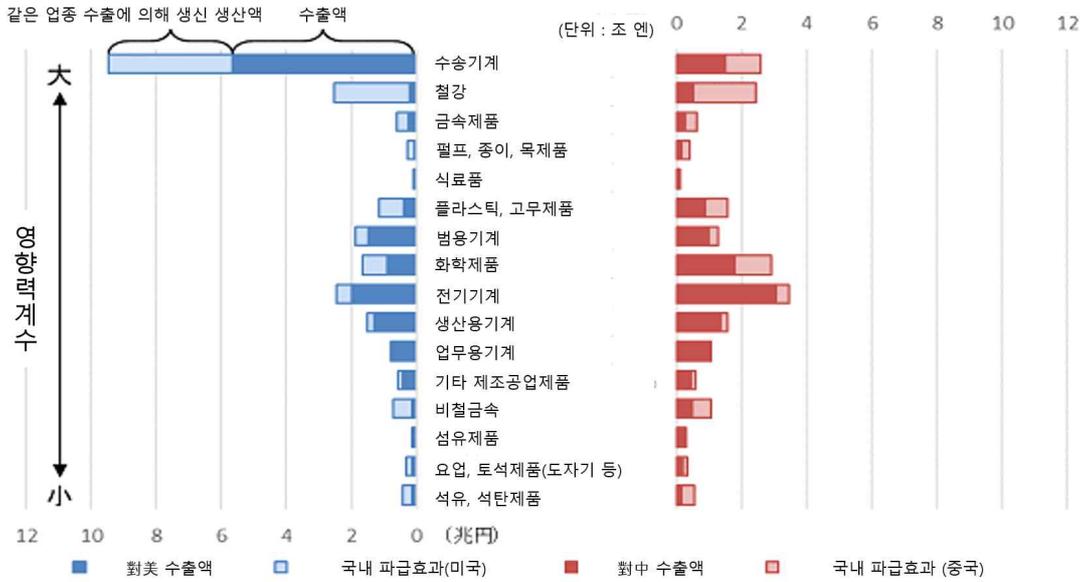
- 수출의 국내산업 파급효과는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보다 더 큼.
 - 2019년 8월 이후 대미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으로 반전되었고 특히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수송기계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, 향후 국내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크게 우려



자료원 : 재무성 무역통계, 총무성 산업연관표

- 산업별 수출과 해당산업의 수출에 의한 국내산업 경제파급효과를 보면, 대미 수출의 주력업종은 수송기계. 수송기계는 산업전반에 걸쳐 국내산업에 영향력이 높아 수출에 대한 경제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남(유발계수 1.41)
 - 반면 대중수출의 주력업종은 전기기계로 수출에 의한 경제파급효과는 수송기계에 비해 낮음(유발계수 1.0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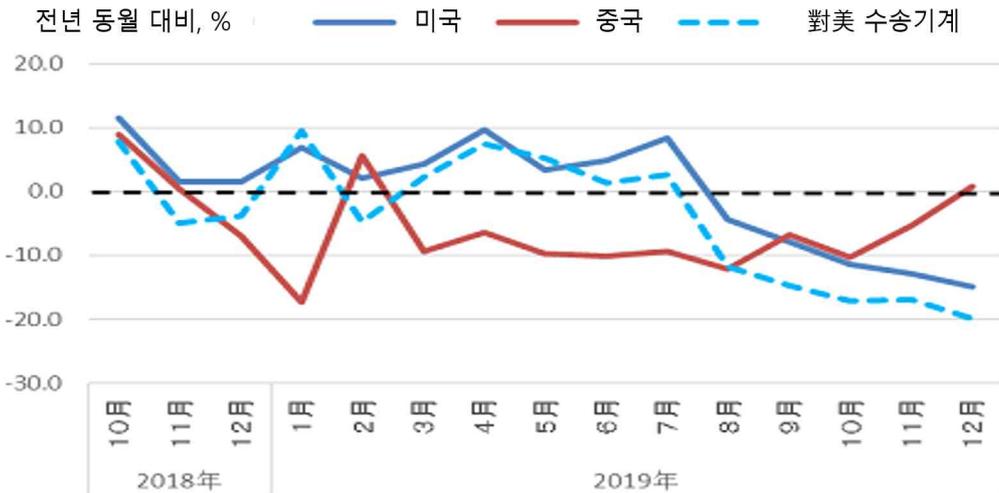
업종별 국내생산 유발(제조업) 2019년



자료원 : 재무성 무역통계, 총무성 산업연관표

- 최근 대미 수출과 대중수출의 동향을 월별로 보면 대중수출은 2018년 말부터 전년 동월 대비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, 대미수출은 2019년 7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로 호조가 지속

최근 對美 對中 수출액의 동향



자료원 : 재무성 무역통계

끝.